

전남

조선업 불황... 서남권 내년 경기 어둡다

내년 1·4분기에 전남 서남권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매우 암울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상공회(회장 주영순)가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 90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88'로 나타나 올해 4·4분기 전망치 '103'보다 크게 낮아 경기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상의, BSI 조사 103→88로 떨어져

'수주 가뭄'에 자금난·환율변동 겹쳐

련업체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업체들은 '수주 가뭄'으로 인해 올초부터 임금 전액 또는 10~20% 삭감을 단행해오고 있으며,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임금 반납사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대불산업단지 내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B업체가 27억3천600만원의 부도를 내고 문을 닫는 등 협력업체들의 고액부도가 잇따

르고 있다. 220여개 협력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대다수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은 "조선업체들의 수주 실적이 바닥을 헤매다시피 한 올해는 어찌어찌해서 버티겠지만, 2~3년 후가 고비"라며 "업종변경이나 폐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BSI를 세부 항목별로 보면 설비투자(115), 제품재고(103)만이 호전된

반면 원재료구입가격(68), 자금사정(76), 경상이익(76), 제품판매가격(85), 생산량(85) 등은 악화될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기업들은 내년 1·4분기에 예상되는 경영여요인으로 '자금난'(28%)에 이어 '환율변동'(21%), '원자재'(19%) 등을 꼽았다.

올해 4·4분기 실적은 당초 전망치 '103'보다 낮은 '95'로 전 분기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설비투자(118), 생산량수준(112), 생산설비가동률(109) 등은 호전됐으나 원재료 구입가격(79), 대외여건(88), 자금사정(91), 제품 판매가격(94) 등은 더 나빠졌다.

/목표=이상선기자 sslee@



해남 '남창 용 줄다리기' 40년만에 재현

해남 북평면 남창 일대에서 정월 대보름행사로서 이어져 오다 명맥이 끊긴 '남창 용 줄다리기'가 최근 열린 '제2회 포구문화제'에서 주민과 관광객이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0여년만에 재현됐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장흥 해당산단 첫삽... 2011년 조성 완료

고용 12만명·생산효과 1조7천억 전망

전남도내 중·남부권의 지역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일 본격 착공했다.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주열)는 이날 박준영 도지사와 유순호 국회의원,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 이병홍 장흥군수, 임주기업 대표,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장흥 해당산단은 2011년까지 국비 705억원, 공사비 1천465억원 등 총 2천2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한밭과 청정 바이오 가공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전체 산단 면적 중 18% 이상이 공원 및 녹지로 조성되고 전자제품·제조업·식품업 사업 등 친환경적 기업의 입주도 예상돼 녹색 전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도내 중·남부권의 지역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건설기간 동안 고용유발 효과는 연간 1만2천 명, 산업단지 조성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는 고용유발인구 12만 명, 생산유발 파급효과는 연간 1조7천6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최권일기자 cki@

"양과 과잉생산 우려... 육묘단계서 자율 폐기"

수확철 폐기보다 비용절감 효과 6.5배

내년에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양과 의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과 육묘단계에서 묘상(苗木)을 자율폐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분석결과 가을 파종 양과가 예년보다 9%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저장양과도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적정재배를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육묘단계에서 자율 폐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농민식 품부에 육묘단계 감축안을 건의, 채

소 수급안정사업 적립금 중 2억2천 100만 원을 양과 육묘 폐기사업비로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양과 주산지인 무안지역 육묘양과의 묘상 2.6ha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자율폐기를 추진해 파종기부터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육묘 자율폐기를 추진하게 된 것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격려 등 수급안정대책을 수확기에 추진할 경우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효과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육묘단계 감축시 일반 육묘 10a당 묘상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640만 원이지만, 수확기에는 4천 150만 원이 소요돼 약 6.5배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

하는 농가에는 총 2억2천100만 원을 지원해 육묘 시점까지 실제 수준의 폐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묘상 10a(300평)당 포트 육묘는 1천 445만원, 일반 육묘는 6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육묘 자율폐기를 추진하게 된 것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격려 등 수급안정대책을 수확기에 추진할 경우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효과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육묘단계 감축시 일반 육묘 10a당 묘상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640만 원이지만, 수확기에는 4천 150만 원이 소요돼 약 6.5배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농협 김장시장 개장

내일까지 서구 상무지구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3~4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정기직거래장에서 김장시장 개장을 한다.

이번 김장시장은 무·배추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가격혜택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직거래장터에서는 배추·대파·간고추·고추가루·갯갈·천일염 등 김장재료들을 시중가격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 최근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는 해남 e-팜은 절임 배추도 함께 판매한다.

특히 행사기간 중 현장에서 직접 담긴 즉석김장김치를 판매해 소비자의 입맛을 돋우고 이를 통해 '김장인도 전 개한다'.

김용복 농협 전남본부장은 "이번 행사 외에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남지역 채소가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ee@

'장성드림빌' 입주희망자 모집

5일 서울·19일 광주서 사업설명회

장성군이 미래 농업·농촌의 신성장 모형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장성드림빌'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장성드림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서울코엑스,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장성드림빌에 대한 입주신청 및 문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실시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입주신청자만 250여명에 이른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해 장성드림빌의 특징, 입주자 지원현황, 향후 계획, 장성군 귀농 및 농정시책 등 장성드림빌에 대해 안내한다. 또 전문가를 초청해 귀농 준비사

랑 및 귀농의 현실과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배 귀농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장성드림빌 조성사업은 삼서면 유령리 일원 16만8천818㎡의 부지에 200호 규모의 전원형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완료단계에 있으며 오는 2011년 입주를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입주자를 위해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 뿐 아니라 맞춤형 영농기술 및 자금지원,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친교형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에 미래 농업·농촌의 신성장 모형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장성드림빌'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장성드림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서울코엑스,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장성드림빌에 대한 입주신청 및 문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실시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입주신청자만 250여명에 이른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해 장성드림빌의 특징, 입주자 지원현황, 향후 계획, 장성군 귀농 및 농정시책 등 장성드림빌에 대해 안내한다. 또 전문가를 초청해 귀농 준비사

랑 및 귀농의 현실과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배 귀농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장성드림빌 조성사업은 삼서면 유령리 일원 16만8천818㎡의 부지에 200호 규모의 전원형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완료단계에 있으며 오는 2011년 입주를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입주자를 위해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 뿐 아니라 맞춤형 영농기술 및 자금지원,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친교형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새얼굴

"지역발전 지원 아끼지 않겠다"

김현의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잘 보전된 예술문화의 전통이 관광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김현의(55)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은 "아울러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무안기업 도시 건설, 영암·해남지역의 F1 경기장 건설, 공공·유관기관의 남양신도시 이전 등 전남 서남부

지역의 종합발전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경제회복을 졸업한 김 본부장은 1981년 한국은행에 들어온 뒤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실장, 경제통계국 통계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정영희씨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청약 기준가-거래가 차액 보장

전남도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2010년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청약계약을 시작한다.

청약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로 가입비는 1마리당 26만원이나 보조금 25만원이 지원돼 실제 농가 부담액은 1만원이다. 올해 말 현재 농가도 다시 재신청해야 하며, 다만 올해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는 내년 가입시 농가 부담금이 면제된다.

청약신청서 농가에서는 농가부담금 1만원,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번호, 계약 대상 소의 바코드 귀표번호를 확인한 후 가까운 지역 축협을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

Table with multiple columns for real estate listings, including '공인중개사: 강영희', 'H.P 0621364-8700', and various property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터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임대대행·낙찰(잔금부족시)·명도(이사)